

술의

나의
술
벗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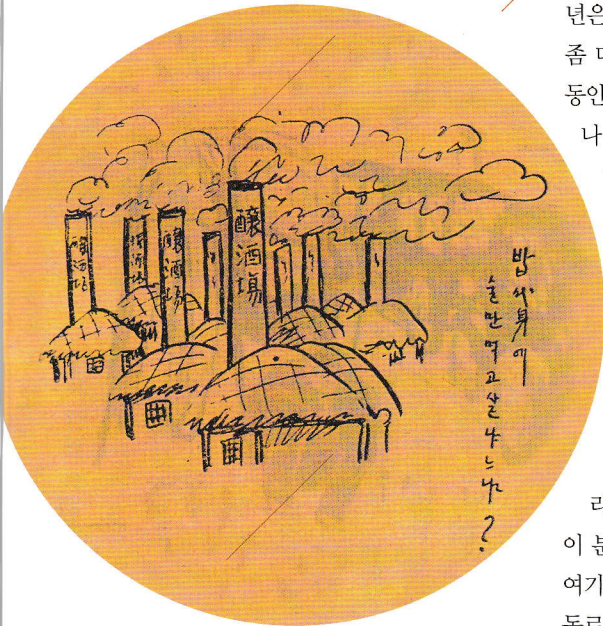


"잠심부터 마셨네, 세상이 시끄럽네, 마시는 핑계네, 집에 왔네, 아무도 없네, 잘 됐다.
또 마셨네, 전화가 왔네, 누군지? 받으려는데, 우물우물 하다가 끊겼네, 조용한 것이 좋
네, 끊긴 전화가 위복이네, 그걸 그렇고, 다 부질없다, 자려는데, 술이 좋 게서인지 잠이
안 오네, 다시 마실까? 염지도 없지, 내일 잠심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아침이 먼저
온다, 아침에 마실까? 생각이 간절하네, 못 참겠다, 에이, 한 잔 더 먹자! 매일 그런가?
어디 물어보자! 누구에게 물어보나? 이래저래 마셨는데 무얼 물어봐? 아이고, 취했다."

● 최명 지음



노래



밥
사
몸
에
술
만
먹
고
살
는
부
는
부
?

여기의 글들은 내가 학교를 그만 둔 후 쓴 글들이다. 정
년은 어느 직장에나 다 있으나, 특히 대학의 정년은 의미가
좀 다르다.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주어진 몇 해
동안 그만 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나의 경우에 훌륭한 후배와 제자들이 많다. 정년을 하고
나서 어슬렁어슬렁 교정을 거닐면서 강의실이나 기웃기
웃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정년은 먼저의 직장에 그만
나오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나,
나는 정년 후 강의와는 아예 발을 끊었다.

.....

그러든 차에 지난날의 이야기를 쓰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만
은 아니나, 더러 쓴 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내용에 따
라 음주·여행·등산·인물 등으로 나누었으나, 그 구분
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실은 이래저래 다 술 마신 이야기다.
여기에는 나의 스승과 가형을 비롯하여, 여러 선후배, 친구,
동료, 제자, 혹은 아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몇몇 술벗
에게 원고를 더러 보냈다. 심심파적으로 읽으라고 했고, 잘
못된 곳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랬더니 교제로
그런지도 모르나 이런 글들은 여러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단
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값 15,000원



9 788963 124797

03810

ISBN 978-89-6312-479-7

／요시다 아키히로／



나는 공부가 별로인 교수라 부지런히 논문을 써서 이곳저곳 발표하러 다니지 않았다. 앓은 것이 아니라 못했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몇 번 다닌 경험은 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다. 1989년 말이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종기崔鍾起(1928-2007) 교수가 전화를 했다. 최 교수는 꼭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한다. 그만큼 부지런한 것이다. 다음 해 3월 하순에 쓰쿠바筑波대학에서 동아시아 정치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으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최 교수는 서울대 법대 선배다. 일찍이 미네소타대학에 유학하였다. 소속은 행정대학원이었으나, 행정학과는 거리가 먼 국제관계가 전공이었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이사장으로 활약했다. 그 연구소는 다른 어느 정치학 관계의 연구소보다 활발했다.¹

¹ 연구소에서는 국제회의도 많이 개최했다. 따라서 외국 학자와의 교류도 활발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최 교수는, 예컨대,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나 미국의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와도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 그만큼 능했다. 나도 1972년에 그 연구소 회의에서 「中共의 世界秩序觀」이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國際關係研究』 3/1, 71-83쪽 참조.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 번 그 연구소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그래서 1990년 3월 25일에 논문을 하나 써 들고, 쓰쿠바대학에 간 것이다.² 날은 일요일이다. 나는 일본에 가면 꼭 만나는 친구가 있다. 도쿄대학 심리 교수인 요시다 아키히로吉田章宏 군이다. 요시다 군은 1934년생이다. 나이 나보다 여섯 살 위이지만, 1965년 일리노이대학에서 만나서부터 형제같이 내는 친구다. 그는 좀 특이한 인물이다. 그는 도쿄대학 교육학부를 다녔고, 육심리학이 전공이다. 본래는 수학을 전공하려다가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1960년 대학졸업식 때 전교 수석으로 졸업생을 대표하여 연설을 한 수재秀才다.³

다음 날 월요일(26일)에 내 발표를 마치고, 요시다 군을 기다렸다. 어제 전화 한 약속은 다섯 시다. 그런데 그야말로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참다못해 여섯 시 십 분에 그의 집으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요시다 군의 부인은 남편이 서울서 온 친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일본이고 어디고 남편이 가는 곳을 알아 살살이 찾는 아내가 몇이나 되랴 싶었다. “아이고, 괜히 전화를 했네! 모르는 게 약이기도 한데.” 하며, 다시 기다렸다. 그가 나타난 시간은 정확히 여섯 시 사십오 분. 근 두 시간 늦은 것이다.⁴

² “Recent Political Development in China and North Korea: Succession and Reform” submitted to the Tsukuba Symposium on “Structural Changes in East Asia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rch 26-27, 1990, Tsukuba, Japan.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한흥수韓興洙 교수도 같이 갔다.

³ 아주 오래전에는 동경제국대학 최우수졸업생은 국왕이 하사하는 은시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1897년에 시작하여 1917년까지 계속되었다는데, 왜 폐지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 전통이 남았다면 요시다 군은 은시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은시계가 아니라 금시계로, 또 비교적 최근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잘 못 알고 있었다.

⁴ 해방 직후에 ‘Korean time’이란 말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말이다. 언젠가부터 그런 말이 없어졌다. 시간을 포함하여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문명의 한 척도이다.

왜 늦었는지를 나는 묻지도 않고, 그가 온 것만 반가웠다. 그는 그저, “Myung!” 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더니, “I am sorry, you see(알다시피 미안해!)” 하고 웃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나타난 초로初老의 신사가 있었다. 우리는 통성명을 하고, 내가 있던 호텔의 박스터즈Baxter's란 술집으로 갔다.⁵ 우리 식으로 말하여 ‘박 터지게 마시는 집’인지도 모른다. 나는 기다리다 지쳐서 목이 타고, 요시다 군은 늦게 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것보다는 허위단심으로 오느라 목이 타고, 초로의 신사는 그래도 자기보다 젊은 두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하는 것이 신기했던지,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덮어두고⁶ 맥주부터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기린’맥주로 시작하였는데, 그것도 한두 글라스다. 나는 마티니를 마시겠다고 하였다. 칵테일은 각자가 취향대로 마시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무엇을 마셨는지는 기억에 없으나, 아무튼 웨이터가 바쁘게 오가기 시작했다.

초로의 신사는 간바야시 데루오 神林照雄이고, ‘가스미カスミ’라는 일종의 식품 슈퍼체인인 사장이었다.⁷ 꽤 큰 기업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술이 약간 오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해군에 근무했다고 한다. 그의 배가 뉴기니 섬 가까운 바다 어디에서 어뢰를 맞고 침몰하게 되자, 그는 바다로 뛰어 들었다. 물속에서 그는 그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배에 달렸던 히노

5_쓰쿠바 중심가에 있는 오후라大藏호텔이다. 쓰쿠바는 작은 학교 도시라 비교적 큰 호텔은 이곳 뿐이다. 학교에 오는 손님은 대체로 이 호텔에 묵는다.

6_여기에 해당하는 한자어로는 제백사除百事란 말도 있고, 파제만사破除萬事 혹은 제만사除萬事란 말이 있다.

7_‘가스미’는 쓰쿠바대학이 있는 이바라키현茨城縣에 근거를 둔 기업이다.

루日章旗에 눈이 갔다고 한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에서 기운이 샘솟듯이 나란 것이다. 그 기운 덕인지 서른네 시간 동안 물속을 헤매다가 어떻게 구출었다고 하였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노마루가 자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랬다니까 그럴 수도 있다.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옆에 있는 요시다 군에게 그 신사가 못 알아듣게 영로 말했다.

“히노마루를 보고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 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나의 친구 요시다가 말했다.

“그런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을 걸세!”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하여는 입을 다물고, 나도 잘 모르는 관상 이야기를 했

“당신의 관상을 보니 당신 얼굴은 하늘이 낸 사람의 상이다. 일장기의 해[日] 당신을 구한 것은 바로 당신의 관상 덕이다.”

술이 거나하기는 했지만 그는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일장 덕분인지 귀국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것이. 그러면서 근자에 교원노조가 초중등학교의 조회 시간에 국가를 부르는 것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에 반대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것이었다. 근자에 한국의 교원노조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을 늦게 배우는 것인가? 하기가 해방 전 한국의 마르크시즘도 일본을 통하여 어오긴 했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간바야시 사장의 심기를 건드리

지 말라고 한 요시다 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언젠가 나는 도쿄에서 요시다 군을 만나 시내를 함께 거닐 적이 있다. 어딘지 무심히 지나다가 보니, ‘M대학’이란 목조 간판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쳤다. 그때 나는 해방 전의 그 대학을 생각하면서 말했다.

“이 학교 좀 꼴렁한 학교지!”

그러자 요시다 군이 대답했다.

“아냐, 아주 좋은 대학이야!”

그리고는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걸었다. 그러다가 그는 나를 보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까는 M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했지만, 실은 네 말마따나 꼴렁한 학교야. 그러나 그 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야!”

내가 존경하는 요시다 군은 진정 군자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1967년 그와 내가 한 기숙사에 있을 적에 나는 그에게 일본어를 배우자고 하였다. 나는 대학 다닐 적에 일어학원에도 한 두어 달 다닌 적이 있어서 소위 ‘가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뎃바람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1914-1996)의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을 읽자는 것이었다.⁸ 그래서 그 책의 끝에 있는 「정치권력의 제문제諸問題」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는 심리학자다. 그러나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고, 아니면 내 심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을 나에게 주었다. 그는 나의 일본어 선생이기도 했다.

⁸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上·下(増補版, 未來社, 1964).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한길사, 1997) 참조.

그래저래 박스터즈에서 대취했다. 사업가 물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주가 없더라도 많이 마셨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음 날 27일 여비와 일당으로 일화 94,584엔을 받았다. 내 공식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귀국 전날인 28일 저녁에도 마음 놓고 마셨다. ‘산스이테山水亭’란 식당에서 1차를 하고, 타이완대학의 류지에조우劉介宙 교수 등을 이끌고 ‘사틴Satin’이란 바에도 2차로 갔기 때문에, 일당으로 받은 돈은 거의 숙박비와 마시는 데로 갔을 것이다. 쓰쿠바 대학 국제관계연구소장인 사토 히데오佐藤英男 교수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당시 사토 교수는 예일대학을 졸업한 미국통의 신진 국제정치학자다. 술을 곧잘 마셨다. 그 다음 해인 1991년 5월 16일 사토 교수가 한국에 왔을 적에 롯데호텔에서 아침은 같이 했으나 술 마실 시간은 없었다.

요시다 군은 1967년에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코넬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소위 포닥)으로 잠시 있었다.⁹ 그 사이에 일본에 가서 결혼을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타카Ithaca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것이다. 1968년 6월이다. 방학이었다. 나는 그가 보고 싶어서 당시 일리노이에서 친히 지내던 수학 전공의 리호 테라스Riho Terras란 친구 내외와 그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코넬대학이 있는 이타카는 뉴욕 주의 중앙에 위치하고, 일리노이에서는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려도 이틀은 걸린다. 요즘 같으면 모텔에서 잤겠지만, 그때는 매우 궁색하던 시절이라 그랬는지 어딘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며말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에 부스스 잠이 깨어 라디오의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가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

⁹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포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post-doctoral research fellow다.

보였는데,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총에 맞은 것이다. 그것이 6월 5일 자정이 좀 지난 시간이었다. 그 해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가 암살당한 해이기도 했다.

그 오후 세 시쯤 우리는 요시다 군의 집에 도착하였다. 현관문에 메모가 있었다. 장을 보러 가니 그냥 들어가 있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기도 무엇하고, 날씨도 좋고 하여 현관 밖의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안 되어 그가 나타났다. 그는 무슨 술인지 한 병을 들고 앞에서 오고, 그의 부인은 뭇지 잔뜩 들어 있는 브라운 백(식료품 가게에서 물건을 담아주는 종이봉투)을 들고 뒤따라오는 것이었다. 아하, 이것이 일본식이구나!

다음 날 대학 구경도 하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엔필드 파크^{Enfield Park}에 간 기억도 있다. 그 다음 날이다. 우리는 메인^{Maine} 주로 향했다. 요시다 군 내외, 테라스 군 내외, 그리고 총각인 나, 다섯이 베일리 아일랜드^{Bailey Island}로 간 것이다.¹⁰ 삼 일을 묵으면서 배를 빌려 낚시도 하였다. 이름 모를 고기도 몇 마리 잡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만지기를 꺼려하여 내가 소위 사시미를 뜨기도 했다. 요시다 군 내외는 말할 것도 없지만 테라스 내외도 회를 잘 먹었다. 작은 어촌인데 고서점도 있어서 책을 사기도 했다.¹¹ 그런 기억이다.

10_Bailey Island는 관광지로 유명한 Casco 만의 작은 섬이다. 왜 하필 그 섬엘 갔는지?

11_그때 산 책으로 기억나는 것은 Zenophon의 *Morabilia*와 Robert Grant의 *The Reflections of a Married Man* (Charles Scribner's Sons, 1894)이다. 전자는 작은 문고판이나 잘 만든 양장본이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고나 할까? 나는 그 책을 서양정치사상사 전공인 김영국 교수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번역을 하였고, 언제 어디서 출판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880년대의 책이란 기억은 있다. 후자는 재미가 있어서 내가 많이 읽었다. 결혼의 장단점을 해학적으로 서술한 수필집이다. 단점만을 이야기하면 마누라에게 혼이 난다는 것을 알고는 장점도 기술한 책이다. 우리말로 이야기 하자면 판관사령^{判官使令}(공처가)의 기록이다. 정년 임시에 서울대 도서관에 기증한 기록이 있어서 그 책이 1894년에 출판된 것인 줄 안 것이다.

쓰쿠바 회의 전에도 아니 그 후에도 요시다 군을 도쿄에서 몇 번 만났다. 또 그가 나를 보러 서울에도 두어 번 왔는데, 그를 최근에 만난 것은 2010년이다. 그는 육십 세인 1995년에 도쿄대학에서 퇴임하고, 이와테岩手대학 등의 사립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수쿠토쿠淑徳대학의 특임교수가 되었다. 이 대학을 마지막으로 그는 2010년에 교직에서 완전히 떠났다. 칠십오 세였다.¹² 정년퇴임 기념행사가 있다하여 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3월 30일 아내와 같이 도쿄에 갔다. 행사는 그날 저녁 항공 근처에 위치한 KKR호텔에서 성대히 열렸다. 나보고 축사를 하라고 하여 간단한 축사말도 하였다.

요시다 군은 정년기념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에 관한 짧은 글을 써달라고 하여 그것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단풍잎: 하나의 삶』이란 작은 책자다. 나에게도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아래의 글을 적어 보냈었다.

What a joy it is to retire at the age of seventy-five.

“Oh, you were fifteen when you had your heart bent on learning. It was sixty years ago.”

75세의 정년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학문에 뜻을 두었을 적에 그대 나이 15세, 60년 전의 일이 아닌가?

七十五叟當停年

12. 일본에서도 국립대학교수의 정년은 65세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예외가 많고, 저명한 교수의 경우에는 흔히 75세까지 정년을 보장한다.

研究教育皆欣然

六十年前志于學

學問已成而立前

일본어로 내가 무슨 글을 쓸 주제가 못되기 때문에 요시다 군의 요청대로 다른 세 언어로 썼던 것이다.¹³ 행사장에서 취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다음 다음 날인 4월 초하루에 그는 내 호텔로 왔다. 시내 구경을 나가자면서 책방에 먼저 들르자고 했다. 간다神田의 산세이도三省堂 책방으로 갔다. 이것 저것 구경하다가 나는 그 전년(2009년)에 나온 바둑에 관한 책 『명국세해名局細解』를 사고, 다른 바둑 책을 또 사려고 하였더니 바둑 책은 그만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바둑이 잡기다. 바둑 같은 것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당한 공부를 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이제껏 정당한 공부란 무엇인지 모르나, 요시다 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모양이다. 그 다음 간 곳이 간다신사神田神社였다. 어려서 그는 그 근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향수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도쿄대학에서 점심을 하면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 저녁엔 예의 쓰키지筑地에서 사시미를 앞에 놓고 사케로 또 취했다. 그는 요즘도 연구가 활발하다. 이런 잡문이나 쓰고 있는 나와는 다르다. 내가 그를 부러워하고 경애하는 이유다. (2012년 3월)

13_吉田章宏, 『もみじ：一つの生』(東京：一莖書房, 2010), 39쪽.